



‘한-중앙아 정상회의’ 안전 개최를 위한 「2026 국가대테러종합훈련」 실시

- ‘테러로부터 안전한 대체불가 대한민국’을 위해,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6개 관계기관, 250여명 참여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국가대테러종합훈련 실시
- 국민참관단 등 600여명 참관, 한-중앙아 정상회의 대비 대테러역량 점검·홍보

□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9월 11일(금) 오후,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서 「2026 국가대테러종합훈련」을 주재하며, 제1차 한-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 차원의 테러대비태세와 관계기관의 대응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.

* (훈련 참여기관 / 인원) 16개 기관 / 250여명

-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^{주관}, 국가정보원, 국방부, 경찰청, 해양경찰청, 소방청, 법무부, 국토교통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 농림축산식품부, 질병관리청, 관세청, 원자력안전위원회, 인천국제공항공사, 대한항공, IKCS 등

○ 「2026 국가 대테러종합훈련」은 제1차 한-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고,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테러 상황에 대한 대응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.

□ 이번 훈련에서는 인천공항의 테러 예방·대비활동을 시작으로, ▲드론테러 ▲폭발물·화생방테러 ▲항공기 납치테러 ▲공항시설 점거·인질테러 등 실제 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테러 상황을 상정하여 관계기관의 대응태세를 확인하였다.

○ 특히 최근 국내외에서 공항을 대상으로 한 드론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, FPV 드론과 군집드론 등 신종 드론 위협에 대응한 인천국제공항의 탐지·식별 및 무력화 체계를 점검하였다.

- 또한 공항 내 동시다발로 발생한 폭발물·화생방 테러에 대한 전문기관의 대응과 항공기 납치 및 공항시설 점거·인질 상황에 대한 경찰·군·해양 경찰 등의 합동 진압작전도 실시하였다.
- 이번 훈련에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, 광역지자체장, 관계기관 주요 인사, 200여명의 국민참관단, 9개국 27명의 주한 외교관 등 역대 최대규모인 600여 명이 참관하여 우리 정부의 대테러·안전관리 역량을 직접 확인하였다.
-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훈련 격려사에서 “오늘 대원들이 흘린 땀방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고 국민께 확고한 안심을 드릴 수 있는 밑거름”이라며,
 - “곧 개최되는 한-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5개국 정상과 주요 인사의 안전을 위해 대테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빈틈없는 경계 태세를 유지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 - 또한 “9·11 테러 2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, 세계 1위 인천공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와 대테러 기관이 모인 의미가 각별하다”며, “드론과 사이버 공격 등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화·고도화되는 테러 위협에 맞서 평소 철저한 반복 숙달만이 실전에서 빈틈없는 대응을 보장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 - 아울러 “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‘대체불가 대한민국’으로 가기 위한 핵심 요소”라며, “비상 상황 발생 시 오늘 훈련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 즉시 대응해 줄 것”을 요청하였다.
- 정부는 이번 「2026 국가 대테러종합훈련」을 계기로 어떠한 테러 위협에도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빈틈없는 테러대응체계를 확립하고, ‘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! 세계가 인정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!’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부서	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	책임자	부 장 전창현 (02-2100-2032)
		담당자	중 령 김성수 (02-2100-2024)

